

# 신뢰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는데 왜?

## □ 위례 상월선원 동안거 천막결사 현대적 의미



김웅철  
중앙승가대 교수  
본지 논설위원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수좌 스님들과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 등 아홉 분이 참여하는 동안거 천막결사의 봉행은 불교계의 안거 전통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처님 재세시의 인도에서 안거의 본래 의미는 우기에 대중들이 모여서 집중수행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정력과 지혜력을 갖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이 사철의 구분이 뚜렷한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하안거와 동안거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불교계는 평균 약 2000여명의 스님들이 전국의 100여개 선원에서 하안거 및 동안거 결제에 동참하여 두 문불출 율행정진에 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재가불자는 물론이고

## 新 행주좌와 어묵동정 수행포교의 토대 구축 대중과 함께 정진 의지

일반인들 중에서도 중정 예하의 결제 및 해제 법문에 귀를 기울여 가르침을 하안거 및 동안거 결제에 동참하여 두 문불출 율행정진에 임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재가불자는 물론이고

런데 최근 들어 남방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전래되면서 간화선 수행 전통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행력을 갖춘 스님들이 종단의 수행전통을 계승한 동안거 묵언, 가행정진에 나선 것은 우리 불교계 내부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상월선원 동안거 결제는 형식뿐만 아니라 동참대중의 원력의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산중의 한적한 안거처를 떠나서 도심포교사찰에서 봉행한다는 점에서 장소의 파격성이 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나 방식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통 수행처가 산중이나 대중의 발길이 없는 한처에 위치하는 이유는 집중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왕래가 많은 위례 선도시의 상월선원을 안거처로 정

한 것은 도심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법한 수행처를 확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둘째, 상월선원 동안거는 천막법당에서 봉행함으로써 겨울의 강추위를 견뎌 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해야 한다. 전국의 선원은 대부분 사격을 갖춘 사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수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겨울 비바람만을 피할 수 있는 천막법당의 수행은 북풍한설의 갈바람을 극복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풍찬노숙으로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려는 눈푸른 남자들의 수행결기가 상월선원의 원만한 회향으로 성취되기를 바란다.

셋째, 상월선원의 동안거는 재가불자들도 함께 외오대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전통 간화선 수행자의 율행정진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화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동안거 결제에 임함으로써 재가불자의 수행풍토 조성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외국에서 유입된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들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도심에서 수행자들이 수행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불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는 수행포교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는 종교성의 변화에 직면한 한국불교는 새로운 포교패러다임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상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때에 한국불교는 수행법을 활용한 포교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월선원의 동안거 결제는 간화선을 활용한 수행포교 전통을 발전시키고, 명상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아홉 분의 남자들이 보여주는 수행가풍이 한국불교 간화선의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명상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11월4일 봉불식으로 위례 천막결사 본격화

### 조계사 비롯한 전국 주요사찰 “한국불교 중흥불사 함께 동참”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동안거 위례 상월선원 야외 천막 고행결사’가 오는 11월11일부터 시작된다.

넓고 큰 벌판에서 이뤄지는 이번 결사는 앞서 11월4일 오전10시 전국의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구례 화엄사에서 모셔온 석조여래부처님 봉불식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곧이어 10월 말에서 11월 초순경, 최소한의 눈과 비를 피할 천막이 들어서면 9인의 결사대중도 선원에 입방한다.

야외에서의 정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종단을 대표하는 중심 사찰,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는 물론이고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도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여정에 적극 함께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사는 부처님을 모셔온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신도들과 동안거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현장을 찾아 투철한 신심으로 치열하게 수행하며, 목숨을 내건 정진에 힘을 보탠다.

이세종 조계사 총무실장은 “일주일에만 한 번 이상 조계사 동참 대중들과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기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경하고 108배를 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환희심 나는 결사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봉은사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찰 신도 대중들과 수행하기 위해 별도 수행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종단을 대표하는 신도대표 기구인 중앙신도회도 천막법당 결사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은 “단체 임원들과 논의를 거쳐 전반적인 내용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사회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이때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해남 대흥사는 매일 천수대다라니 108독 기도법회를, 공주 마곡사, 영전 은해사, 구례 화엄사, 고창 선운사, 성남 봉곡사 등의 사부대중도 결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하며 천막결사에 원력을 모은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 죽음 이후에도 쓸쓸한 그들 극락왕생 발원

### 사노위, 승화원 추모의집서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

“같은 건물 2층 살던 할머니,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가봤더니 쓰러져 있더라. 119에서 데리러 가면서 전화번호 알려주니 내가 보호자가 됐다. 나도 없이 살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들 없이 산다. 죽어서는 가족을 찾는다며 장례도 못 한다. 고기도 생선도 아닌데 냉동실에 있어 야하니 마음이 괴롭다.”

연고자(緣故者) 없이 세상을 등진 이들의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린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추모의집. 서울 용산구 쪽방촌 센터 동자동사랑방 회원인 조인형 씨가 직접 적어온 추모사를 읽자 장내엔 적막이 흘렀다. 딱딱함에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스님들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파주 추모의집에서 ‘무연고 사망자 위령제’를 봉행하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연고 사망자 영단에 예를 올린 뒤 눈물을 흘리는 동자동사랑방 회원의 모습.

또 다시 함께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해찬스님)는 이날 ‘무연고 사망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며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웠던 이들의 고혼을 위로했다.

위령제가 열린 파주 서울시립승화원 제1묘지 추모의집엔 3000여 명의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유골이 수습된 연도별로 분류돼 있다. 반듯한 유골함 하나 없

이 10평 남짓한 비좁은 시멘트 건물 안 한 꺼번에 보관돼 있다. 이런 가운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쓸쓸한 이들을 위무하기 위한 이번 자리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10월17일)에 맞춰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범상·인우·현성스님 등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은 이날 천수경, 영가축원, 아

미타 정근 기도를 하며 외로운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위령제에 함께한 동자동사랑방 주민과 홀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나눔과나눔 등 빈곤단체 회원들은 스님들의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영단에 예를 올렸다. 1년 내내 굳게 닫혀 있던 추모의집의 문도 이날만큼은 개방됐다. 스님들과 위령제 참석자들은 유골이 모셔진 추모의집 내부 봉안당에 방문해

회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류금신 민중가수의 공연은 추모 분위기는 한층 고조시켰다.

양한울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빈곤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확산시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이성진 기자 sj0478@ibulgyo.com

## 산자와 간자를 위한 페스티벌

# 제2회 경산수륙재(京山水陸齋) 봉행

### 관념불교 지식불교에서 실천불교 나의 불교로

경산수륙재는 서울 인근 경산에 전승되고 있는 범패소리와 의례 형식을 바탕으로 출가 법사스님과 재가거사님들이 함께 수륙의 일체 성현과 범부를 초청하여 보시를 행하며 법을 깨치고 함께 정도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입니다.

유치문과 계승은 한글로 거사들이 홀로 아뢰거나 함께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수륙재 실행은 무외시 재시 법시의 보시바라밀 등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륙재 등 현재 한국불교의 재회는 주로 어산 법사스님들이 주로 행해왔지만 경산수륙재는 재가거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참여불교 실천불교 동참불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경산수륙재 동참은 단순한 수륙재의 동참과 많이 다릅니다. 동참 법사 거사님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소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타 수륙재에서 재가 거사들은 공양을 올리거나 진행을 돕는 수준이지만 경산수륙재는 의례 자체의 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경산수륙재는 특정 사찰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경산수륙회(출재가자 모임)에서 주최하고 경산거사님들에서 주관합니다.

많은 사부대중의 동참을 권선합니다.

경산수륙회

회장 정오 이철준 / 대표 법안 박영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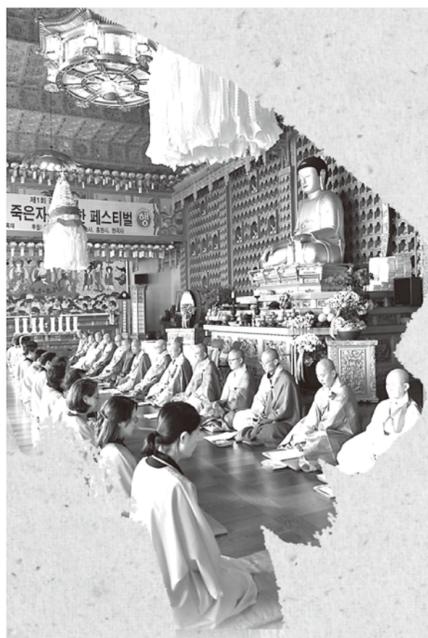
## 제2회 경산수륙회

일시 2019. 11. 9. 토 오후 1시~5시  
(리허설 2019. 10. 26. 토 오후 1시~5시)

장소 흥원사  
서울 강서구 양천로49길 56-12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하차 1번 출구 200미터)

| 주최 | 경산수륙회  
(조계종 교육원 2019년 승가결사체의 전법 교화활동 연수인증 단체(2018.12.18.선정))

| 주관 | 경산거사님



참가자격 경산수륙회 회원으로 입회하고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한 출가스님 및 경산거사님에 가입하는 재가 거사(우바새와 우바이를 통칭함)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입금 신한은행 100-033-348765 (예금주: 경산수륙회)

참가문의 경산거사님  
고경철 : 010-5494-3217 신두현 : 010-8740-7773